

시끌벅적 e-스타

박용수의 파스칼리즘



얼굴 낙서에도 등급이 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대학생활의 빠질 수 없는 추억 MT. 고...

요즘은 예전에 비해 혼자서 음악 듣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 방송이나...

Moment Of Solitude의 황홀한 감동

를 펼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연주음악, 그래서 난 연주곡이 좋다. 무드음악이나 경음악으로 불리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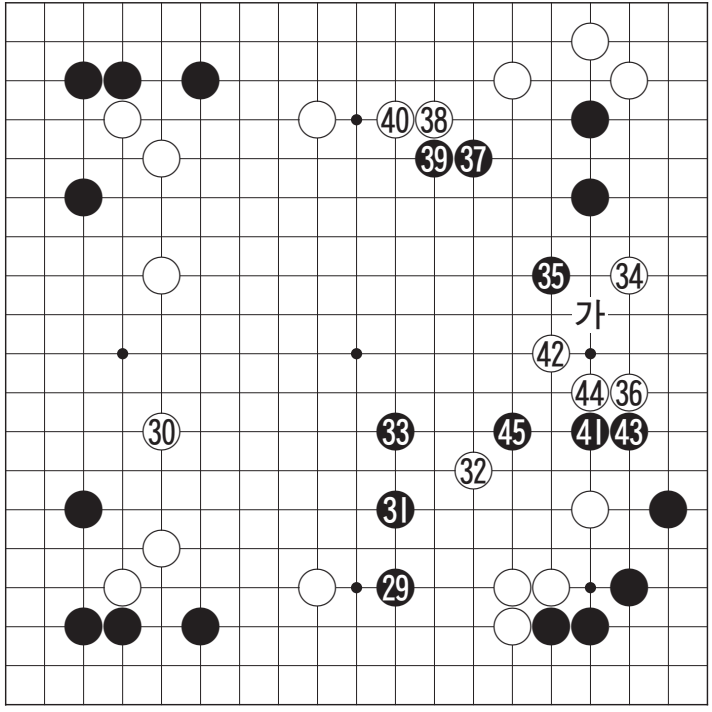
리빙 센스

건강한 두피 만들기 ②

▲올바른 샴푸 모근부터 머리카락까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샴푸는 손바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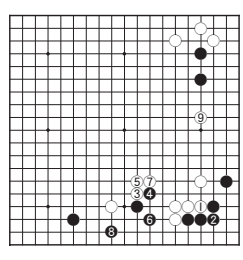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4일(음 3월 19일 甲午)

36년생 돌아보면 이웃을 살펴볼 일이 있다. 48년생 주변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식구들의 건강을 살펴볼 때다.



광주 유단자회 리그전

세력이 곧마로 3보 (29~45)



참고도

포석의 기로에 선 장면인데, 박정규 5단은 즉각 흑 29로 뛰어들어 적 극적인 흑파작전을 선택한다.

바둑소식

한국바둑리그 제1회화재 선두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 1라운드 경기 결과 충북 제일화재가 1위에 올랐다.

굿모닝 잉글리쉬 <1146>

오하오우 니혼고 <1146>

니하오 쑹구위 <123>

한자 이야기 <763>

Where is the remote control? 원격 조종기가 어디에 있지요?

A: Where is the remote control? B: It's on the couch. A: Could you hand it to me? B: Sure.

氣(き)を付(つ)けた方(ほう)がいいだろうね. 조심하는 게 좋겠지.

A: 來年(らいねん), 大(おお)きな 地震(じしん)があると聞(き)いたけど, 本當(ほんとう)かなあ. B: さあ, いつあるか分(わ)からないけど, 氣(き)を付(つ)けた方(ほう)がいいだろうね.

我从马尼拉来。 나는 마닐라에서 왔습니다.

A: 你从哪来? B: 我从马尼拉来. A: 马尼拉怎么样? B: 马尼拉很大, 人很多.

膏梁珍味 (고량진미) 기름질 고, 기장량, 보배진, 맛미

고량진미(膏梁珍味)는 기름질 고기와 맛있는 곡식으로 만든 진귀한 맛이라는 뜻으로, 매우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말한다.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